

아지남, 회사의 운영자 지위에 대한 정부 승인과 빈트후크 사무소 개설 발표

해밀턴, 버뮤다--(BUSINESS WIRE)-- 나미비아 연안을 중심으로 하는 탐사 회사 아지남(AziNam Ltd., “아지남” 또는 “회사”)이 나미비아 연안 석유 탐사 라이선스(“PEL”) 34의 사업권을 위한 정부 승인을 얻고, 나미비아의 수도인 빈트후크에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운영자 지위에 대한 정부 승인

최근 수 개월 동안 아지남은 나미비아 연안 탐사 라이선스에 대한 지분을 확대해왔다. 2014년 한 해 동안 아지남은 PEL 34의 지분을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나미비아 정부와 아지남의 파트너들은 아지남을 PEL 34의 운영자로 승인했다.

나미비아 연안 PEL 30, 33, 34에 대한 회사의 현재 지분은 아래 제시된 표와 같다.

PEL 30	에코 아틀란틱 오일 앤 가스(Eco (Atlantic) Oil & Gas)	32.5% (운영자)
	아지남(AziNam)	32.5%
	톨로우 오일(Tullow Oil)	25%
	남코어(Namcor)	10%
PEL 33	에코 아틀란틱 오일 앤 가스	60% (운영자)
	아지남	30%
	남코어	10%
PEL 34	에코 아틀란틱 오일 앤 가스	50%
	아지남	40% (운영자)
	남코어	10%

신규 사무소 개설

또한 아지남은 빈드후크 업무지구 중심부에 새로운 사무소를 개설했다. 이 사무소에는 이미 나미비아 국영 정유회사인 남코어(NAMCOR)의 전 E&P 매니저였던 우아피 우트자바리(Uaapi Utjavari)가 이끄는 경험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다. 빈드후크 팀은 나미비아 내에서 아지남의 상업, 기술 및 운영 기능의 허브로써, 광범위한 지역에서 회사의 탐사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아지남의 관리 이사인 데이비드 스투트(David Sturt)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나미비아 연안 탐사 운영자로 선정된 것은 해당 지역에서 우리 사업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의 자산으로 기 수행되고 있는 작업의 품질을 반영하고, 아지남의 재무적 강점과 기술적 경쟁력을 잘 보여준다. PEL 34의 운영권 인수에 대한 나미비아 정부와 자원 에너지부의 승인은 회사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었다. 나미비아 사업 전반에 걸쳐 우리는 다양한 기술 평가 업무를 수행했고, 파트너들을 대신하여 다수의 운영 프로젝트들을 관리해 왔다. 우리는 운영자 지위 획득을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이자 우리의 기술 및 운영 역량을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빈드후크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우아파 우트자바리를 아지남의 아프리카 지역 탐사 부사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우리는 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나미비아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수의 대규모 독립 E&P 회사들이 나미비아 연안에서 상당 규모의 탄화수소 발견 잠재력을 인정받고, 탐사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서 나미비아의 E&P 부문은 유망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아지남은 나미비아 연안 G&G에 대한 최고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나미비아 연안의 잠재적 석유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과 연계함으로써 아지남은 발비스(Walvis) 및 루더리츠(Luderitz) 유역에서 지배적인 지분을 확보했고, 차표층 파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나미비아의 유리한 라이선스 조건과 매력적인 사업 환경은 탐사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우리는 나미비아 정부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

참고

씨크레스트 그룹(Seacrest Group)의 후원을 받는 E&P 업체인 아지남은 툴로우 오일(Tullow Oil), 모렐 옛 프롬(Maurel et Prom), 채리엇 오일 앤 가스(Chariot Oil and Gas), 에코 아틀란틱 오일 앤 가스(Eco (Atlantic) Oil and Gas)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나미비아 연안 발비스와 루더리츠 지역의 약 67,000km² 면적에 대한 총 6 개 라이선스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미비아는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가스에 대한 탐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다수의 메이저 정유 회사들로 관심을 커지고 있다.

이 나라에 대한 업계의 관심 증가와 함께 포클랜드 섬,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앙골라 등 남대서양 주변부의 지리적으로 유사한 지역에서 최근 이루어진 탐사 허가와 성공은 이 지역을 지구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탄화수소 매장 잠재 지역들 중 하나로 만들었다.

씨크레스트 캐피탈 그룹은 석유와 가스 산업의 업스트림 부문을 주도하는 전문 에너지 투자 기업으로, 회사의 자산과 관계를 이용하여 석유와 가스 탐사 기업들로 이루어진 다각화된 국제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씨크레스트 캐피탈 그룹은 2011년부터 영국, 노르웨이, 서아프리카, 아일랜드, 동남아시아 및 남미에서 다수의 신규 탐사 기업들에 성공적으로 투자해왔다. 씨크레스트의 강력하고 장기적인 지원의 결과로 아지남은 나미비아 연안 지역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기회를 이용하고 확대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사진/멀티미디어 갤러리:

<http://www.businesswire.com/multimedia/home/20150511005927/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연락처

아지남(AziNam Limited)

데이비드 스톨트(David Sturt)

+971 55 191 9808

www.azinam.com

비고 커뮤니케이션즈(Vigo Communications)

패트릭 단코나(Patrick d'Ancona)

크리스 맥마혼(Chris McMahon)

알렉스 알렉산드로프(Alex Aleksandrov)

+44 (0)20 7016 9570

www.vigocomms.com